

바이든 시대의 미·중 관계 전망

2020년 제2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바이든 시대의 미·중 관계 전망
2. 일 시: 2020. 12. 21(월) 16:00~18:00
3. 발표자: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CCIEE) 장연성(张燕生) 수석연구원

1. 바이든 시대의 정책 특징

-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정책은 트럼프 시기와 비교하여 △국제주의의 △다자주의 △CPTPP 복귀 △정부 역할 강화 등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
 -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트럼프 행정부 시기는 고립주의 기조를 고수한데 비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국제주의를 핵심으로 전통적 외교정책, 전문성, 균형을 내세우는 것이 특징일 것임.
 - 역사적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은 국제주의 노선에 비해 고립주의 노선을 고수한 기간이 훨씬 더 길었음.
 - * 지난 1920~1930년대, 영국과 프랑스의 패권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윌슨 전 미국 대통령은 국제연합기구 설립을 제안하여 국제연맹을 설립하였지만 당시 고립주의를 고수하는 사람이 대다수였던 의회에서 국제연맹 가입은 부결됨. 그 이후로 미국은 연속 세 명의 대통령에 걸쳐 계속해서 고립주의 외교정책을 고수함.
 -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 시기와 동일하게 건제파(建制派, 친중 성향)의 전통적 외교 기조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마찰을 비롯하여 세계에는 많은 마찰이 존재하며 미국 내부적으로도 분열과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교체된다 해도 국제적인 대세를 되돌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가치관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와 인권을 더욱 강조할 것이며, 국제 관계 측면에서 미국의 동맹국 체계를 더욱 중시할 것임.
 - 글로벌 공공재 공급 측면에서 미국은 제1대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할 것임.

- [일방주의와 다자주의] 트럼프 시기는 일방주의를 내세우며 여러 국제기구에서 탈퇴한 바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 프레임으로 회귀할 것임.
 - 현재의 글로벌 표준을 미국의 국내법 표준에 맞춰야 한다는 전제 하에 WTO 등 국제기구의 개혁을 촉구하며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하며 파리 기후변화협정 등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것임.
 - 라이트 하이저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TO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인식
 - ① 모든 가입국에 기준 관세율(baseline tariff rates)을 적용, 다만 제한된 예외 조항을 통해 민감 상품을 보호
 - ② 'FTA조항을 이용하는 시장 확장(end the free-trade-agreement land grab)'을 중지, EU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 인접한 나라들을 제외한 모든 가입국은 상호간 실질적·무조건적인 최혜국 대우를 적용
 - ③ 중국과 인도 등 규모가 큰 선진경제체에 더 이상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를 적용하지 말 것
 - ④ 새로운 규칙의 제정으로 중국의 '국가자본주의'가 초래하는 경제 왜곡을 방지할 것
 - ⑤ 현재 패널과 상소기구로 구성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개편, 상소기구를 폐지하고 패널만 보류할 것

- [TPP 탈퇴와 CPTPP 복귀] 트럼프 시기에 TPP를 탈퇴하였으나 바이든은 대통령 정식 취임 후에 CPTPP 참여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예상
 - 바이든 행정부가 만일 CPTPP에 참여한다면 현재 동결된 22개의 규칙과 조항들을 다시 해제하려고 할 것이며 그와 동시에 새로운 무역 규칙과 의견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도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CPTPP는 향후 미·중의 규칙 게임이 이뤄지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한중일 FTA 협상의 가속화도 촉진될 것임.
 - 바이든 행정부의 장기적인 목표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를 건설하는 것임.

- [시장에서 정부로] 1979년에 시작된 신자유주의시대가 마감을 하고 새로운 뉴딜 정책과 케인즈 주의가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글로벌 산업·공급·밸류 체인 안전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며, 정부의 산업·공급·밸류 체인에 대한 개입 의지가 강화될 것임.
 - 재닛 옐런(바이든 행정부의 재무장관 예정자)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보다는 고용 촉진에 초점을 두고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할 것임.
 -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문제를 중시하는 동시에 IMF나 WTO 등 다자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도 중시할 것임.
 - 또한 공중위생보전과 사회 모순의 해결을 더욱 중요시할 것임.

2. 바이든 시대의 글로벌 추세

□ 세계 경제는 글로벌화의 황금 발전기(전반기)를 지나 이제 세계적인 위축 단계(후반기)에 들어섰음.

- 글로벌화 전반기의 세계 경제는 혁신·개방·시장화를 동력으로 발전의 황금기를 거쳤음. 그러나 역사적으로 글로벌화 후반기에는 통화·은행·금융·경제 위기가 다수 발생할 것임.
- 1990~2000년, 2001~08년, 2009~19년의 세계 1인당 GDP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3.3%, 7.1%, 1.9%임.
- 향후 5~10년 사이 세계 1인당 GDP 연평균 성장률은 2% 미만 수준일 것으로 전망

표 1. 주요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세계경제	선진국			신흥시장과 개도국				발표시기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IMF	-4.4	-4.3	-8.3	-5.3	1.9	-4.1	-10.3	-5.8	2020. 10
OECD	-4.5	-3.8	-7.9	-5.8	1.8	-7.3	-10.2	-6.5	2020. 09
아시아 개발은행	—	-5.3	-8.0	-5.4	1.8	—	-9.0	—	2020. 09
세계은행	-5.2	-6.1	-9.1	-6.1	1.0	-6.0	-3.2	-8.0	2020. 06
UN	-3.2	-4.8	-5.8	-4.2	1.7	-4.3	1.2	-5.2	2020. 05

주: 표에 기재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중에서 IMF와 OECD에서 발표한 수치는 구매력평가 기준 GDP이며, 그 외 기구에서 발표한 수치는 평균화를 기준 GDP임.

- 글로벌 경제는 무역과 투자의 성장이 둔화되는 새로운 단계이자 산업·공급·밸류 체인이 새롭게 조정되는 단계에 들어섰음.
- 이런 상황에 비추어 글로벌화의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야 함.
 - 중국 정부는 향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중국 경제가 여전히 전략적 기회의 시기에 처해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을 경제·기술 분야의 전략적 경쟁국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발전 기회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대격변의 시기에 위기와 기회가 항상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관건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가 하는 데 있음.

□ 향후 세계는 여러 가지 충돌과 대항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

- [투키디데스의 함정] 신흥 대국은 필연적으로 기존 강대국에 도전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불가피함. 역사적으로 16건의 사례 중에서 12건이 전쟁으로 이어졌음.
 - 1870-1913년 영국과 프랑스는 점차 쇠퇴기에 진입한 반면 미국과 독일은 점차 강성해짐. 이러한 권력의 변화는 국제 구조와 세계 질서의 변화를 가져옴.
 -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세계 주요국들은 일시적인 상황만 보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임.

- [사무엘슨의 함정] 신흥 대국의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기존 강대국은 큰 위협을 느끼게 되며, 이에 따라 충돌과 대항이 다수 발생하게 됨.
 - 향후 중국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미국의 핵심기술 우위를 위협하거나 대체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른 미·중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임.
- [킨들버거의 함정] 신흥 강국이 기존 패권 국가가 가졌던 글로벌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재앙이 발생하게 됨.
 -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 미국이 영국을 대신하여 패권국가가 되었으나 전 세계 공공재의 공급을 책임지지 못하면서 세계경제 체제가 쇠퇴하게 되었음.

□ 글로벌 산업·공급·밸류 체인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임.

- 세계 각 국가와 지역 간의 분업 시스템으로 구축되었던 글로벌 산업·공급 체인이 현재 공급과 수요·생산방식·생산과정 등이 변화하면서 일부 연결고리가 붕괴되기 시작했고 분산화·지역화의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함.
 - 한 가지 제품을 세계 전 지역에서 각자의 비교우위에 기반한 분업을 통해 제조함으로써 낮은 원가, 높은 효율성, 재고 제로를 확보할 수 있었던 낭만의 글로벌 시대는 이제 종결되었음.
- 향후 글로벌 산업·공급·밸류 체인은 AI, IoT, 빅데이터, 로봇 등 기술의 발전을 통해 더욱 축소될 것이며, 이러한 체인의 유연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소수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으로 발전할 것임.
- 또한 향후 의약, 건강, AI 등 산업의 시장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클 것이며 △산업체인의 디지털화 △제조 체인의 서비스화 △무역 체인의 전문화 △서비스 체인의 국제화로 발전할 것임.
- 이외에도 향후 △소비자 서비스업은 미니멀화·정교화로 △생산자 서비스업은 고품질화·세계화로 △공공서비스는 스마트화·조직 플랫폼화로 발전될 것이며 서비스와 제조, 서비스와 실물, 서비스와 디지털, 서비스와 도시, 서비스와 민생 등의 심도 깊은 융합을 이룰 것임.

3. 바이든 시대의 미·중 관계

- 182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산업혁명, 글로벌화의 발전, 권력 교체 등 요인으로 인해 국제 구조와 세계 질서는 큰 변화의 과정을 거쳤으며 중국과 미국의 경제도 이에 따라 함께 변화해옴.
 - [1820년대] 전통적으로 농업에 기초한 중국 경제는 세계 총생산의 1/3을 차지, 같은 시기 미국 경제는 세계 총생산의 1.8%를 차지

- 그 후 1870~1913년 사이, 전 세계는 제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전기화·글로벌화로 발전되었음.
- [1950년대] 중국의 GDP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로 감소, 같은 시기 미국 경제는 크게 발전하여 세계 총생산의 27.5%를 차지
 - 마오쩌둥(毛泽东) 시대 중국이 독립과 주권을 회복하였으나 그 시기에는 경제발전이 많이 뒤쳐져 있어 사람들의 먹고 입는 기본적인 수요조차 만족시킬 수 없었음.
- [1980~2020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로 경제가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면서 세계 제2강국(G2)으로 부상,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강국임.
 - 덩샤오핑(邓小平) 시대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이후 40년간 시장경제, 개방형 경제, 산업경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음.

표 2. 세계 GDP 대비 주요국의 GDP 비중 변화(%)

	1700년	1820년	1952년	1978년	2003년
중국	22.3	32.9	5.2	4.9	15.1
인도	24.4	16.0	4.0	3.3	5.5
일본	4.1	3.0	3.4	7.6	6.6
유럽	24.9	26.6	29.3	27.8	21.1
미국	0.1	1.8	27.5	21.6	20.6
러시아	4.4	5.4	9.2	9.0	3.8

□ 중국 경제는 지난 40년간 개혁·개방의 고속 성장 시대를 지냈으며 2021년부터 '14·5 계획'의 새로운 발전 시기에 진입할 것임.

- 2021년은 '14·5 계획'의 첫 해이자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로 향하는 첫 해이므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임. 향후의 발전에 대해 △새로운 발전 단계 △새로운 발전 이념 △새로운 발전 구도의 세가지 신(新) 개념을 도출함.
 - [새로운 발전 단계] 질적 발전을 주제로 하고 국민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생활이라는 목표의 실현을 근본 목적으로 하여 현대화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함.
 - [새로운 발전 이념] 혁신을 가장 큰 동력으로 삼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색을 창출하며 녹색 발전을 보편적으로 발전시키고 개방을 필연적 방향으로 정하며 근본 목적을 공유해야 함.
 - [새로운 발전 구도]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여 국내·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발전 구도를 추동함으로써 국제적인 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우위를 확보해야 함.

□ 중국은 경제 발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혁신, 법치, 고품질 등 질적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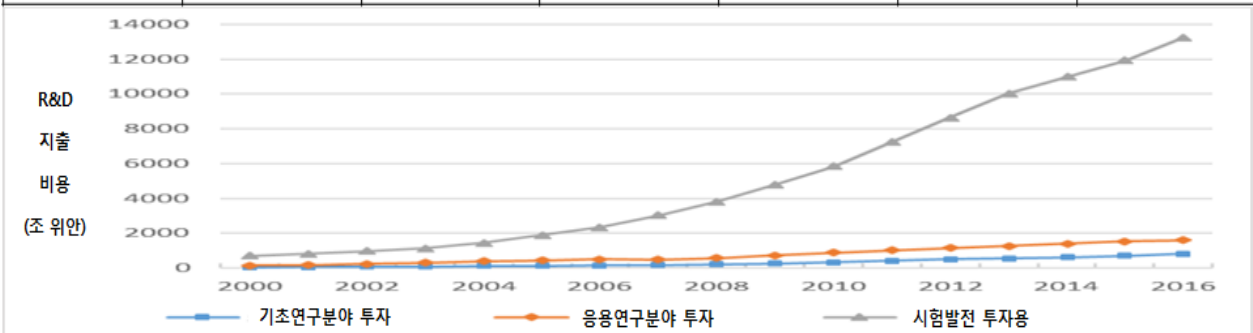
- [과학기술의 혁신]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국가 발전의 전략적 기반으로 삼음.
 -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했던 지난 40년의 기간 중 거의 30년 동안 일본이나 한국처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가공무역의 노선을 선택했음.

-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부터 점차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중시했으며, 앞으로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
- 지난 5년간 중국의 과학기술 R&D에 대한 투자 규모의 평균 증가율은 줄곧 두 자릿수를 기록, 2019년 중국의 R&D 투자 규모는 2조 2,000억 위안을 상회하였음.
- 그러나 중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미국(2.83%), 일본(3.26%) 등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기초 연구의 비중도 선진국 평균(15%이상)보다 낮은 수준임.

표 3. 중국의 R&D 투자 비용 및 GDP 대비 R&D 투자 비중(억 위안, %)

	2017		2018		2019	
	R&D 투자 비용	GDP대비 R&D 투자비	R&D 투자 비용	GDP대비 R&D 투자비	R&D 투자 비용	GDP대비 R&D 투자비
전 국	17606. (억 위안)	2.13%	19677.9 (억 위안)	2.19%	22143.6 (억 위안)	2.23%
광둥성	2343.6	2.61	2704.7	2.78	3098.5	2.88
장쑤성	2260.1	2.63	2504.4	2.7	2779.5	2.79
저장성	1266.3	2.45	1445.7	2.57	1669.8	2.68
산둥성	1753	2.41	1643.3	2.15	1494.7	2.1
푸젠성	543.1	1.69	642.8	1.8	753.7	1.78
후베이성	700.6	1.97	822.1	2.09	957.9	2.09
후난성	568.5	1.68	658.3	1.81	787.2	1.98



- [법치] 규칙·제도의 법치화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완비해야 할 것임.
 - △규칙과 규제 등의 제도형 개방 고도화 △수준 높은 글로벌 표준과 상호 연계성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고품질] 산업·공급·밸류·혁신 체인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함

□ 또한 강대한 국내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할 것이며 더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임.

- 2021년부터 내수확대 촉진이 경제 발전 전략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임.
 - 중국의 엔겔지수는 1978년 60%에서 2000년 40%, 2019년 28.2%로 감소함. 먹고 입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 되면서 주택이나 자동차 등 기타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이런 변화는 중국의 중화학공업과 건설업의 발전

을 견인했음. 향후 15년 후에 중국의 엔겔지수는 20% 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차세대들의 새로운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이므로 앞으로 중국의 비교우위는 거대한 시장규모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수요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
 - 앞으로 중국 차세대들의 높은 수준의 새로운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관건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개혁의 3대 핵심과제는 △토지, 노동력, 자본, 기술, 데이터 등 요소의 시장화 배분 △비즈니스 환경 개선 △과학기술 혁신 체제와 환경 개선이 될 것임.
- 2019년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세계 31위를 기록했으며 신용 대출, 세금 납부, 국경 간 무역, 파산 신청 등의 분야에서 모두 낮은 순위를 기록함. 중국은 향후 이런 단점을 개선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
- 높은 수준의 개방을 위한 3대 핵심과제는 △상품과 요소 등의 유동형 개방 확대 △규칙과 규제 등의 제도형 개방 고도화 △혁신과 인재 등의 지식형 개방 수준을 제고하는 것임.

표 4. 2013~17년 주요국의 주민소비 구조(%)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한국
생존성 소비	66.1	34.8	50.8	49.3	49.2	43.6
식품, 담배, 술	30.5	8.5	17.4	13.7	12	16
의류	7.3	3.2	3.7	4.7	5.4	6.1
주거	22.2	19	25.5	24.1	27.1	18.5
생필품, 서비스	6.1	4.1	4.2	6.7	4.7	3
향유형 소비	33.9	65.2	49.2	50.7	50.8	56.4
의료, 보건	7.4	21.3	3.7	5.2	1.8	5.1
교통, 통신	13.2	12.1	13.9	17.3	15.5	15.5
교육, 문화, 레저	10.9	11.1	10	9.9	11.3	14
기타	2.4	20.7	21.6	18.3	22.2	21.8
- 금융보험		8		6.1	6.1	
- 숙박		6.9	7.8	5.3	9.5	8.3

표 5. 2017~19년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세계 순위

	전체 순위	기업설립 난이도	시공허가신청	전력 설치	자산 등기	신용 대출	중소 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국경간 무역	계약 이행	파산 신청
2019년	31	27	33	12	28	80	28	105	56	5	51
순위 변화	+15	+1	+88	+2	-1	-7	+36	+9	+9	+1	+10
2018년	46	28	121	14	27	73	64	114	65	6	61
순위 변화	+32	+65	+51	+84	+14	-5	+55	+16	+32	-1	-5
2017년	78	93	172	98	41	68	119	130	97	5	56

□ 중국은 격변하는 세계 환경과 중국의 부흥 목표를 총괄적으로 인식하여 '쌍순환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새로운 발전구도의 형성을 가속화할 것임.

- 혁신·조화·녹색·개방·공유의 새로운 발전 이념과 대순환·쌍순환의 새로운 발전 구도를 총괄할 것임.
- 대순환의 주체적 지위 확립과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총괄할 것임.
 - 관세율 인하, 비관세 조치 감소, 무역 원활화 촉진, 서비스 개방 확대 등의 추진
- 쌍순환의 새로운 구도와 개방형 세계경제 체제의 건설을 총괄할 것임.
 - 동아시아, 일대일로, 미국·유럽 생산네트워크를 강조
- 자유무역시험구의 '자유무역'과 '시험구'의 역할을 총괄할 것임.
 - 시범정책의 확대 적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과의 관계
-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변경 지역의 개방을 총괄할 것임.
 - 상품·요소 개방, 제도 개방, 혁신 개방 간의 관계
- 혁신 경제와 고부가가치 경제 및 법치 경제 발전을 총괄할 것임.
 - 개방 혁신, 법제화, 공유, 고부가가치 간의 관계
- 발전과 안전을 총괄할 것임.
 - 공급 체인, 과학기술, 식량, 에너지, 금융의 안전
- 개방과 자주를 총괄할 것임.
 - 개방 압력, 대립국가와의 공존, 자립자강, 안전 통제 간의 관계
- 정부와 시장을 총괄할 것임.
 - 새로운 뉴딜 정책, 케인즈 혁명, 시장 메커니즘 간의 관계
- 다자 무역체제와 지역 일체화를 총괄할 것임.
 - WTO 등 다자 체제와 FTA 등 지역협정 간의 관계

질의응답(Q&A):

Q 1.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 기업 제재, 수출입 규제 등 다양한 압박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중국 경제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

A 1. 우선 먼저 '트럼프의 무역전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살펴봐야 함. 미국의 GDP 대비 중국의 GDP 비중은 1990년의 6.62%(명목 기준)에서 2020년의 70%로 증가함. '2/3의 현상'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제2순위 국가의 GDP가 제1순위 국가의 70%이상 수준으로 성장하였을 때 양국 간에는 필연코 충돌이 발생하게 됨. 미국 사람들의 말로 하자면 '코끼리가 개미 뒤에 숨을 수 없듯이 중국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든 겸손한 태도를 보이든 간에 미·중간의 갈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임. 개인적으로는 향후 미·중관계는 다음 세 측면에서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①양국의 상호 이익에 관한 문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와 같이 중국이 미국의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상품을 구매하는데 관한 문제 ②양국의 체제 간의 충돌: 국유기업, 공정한 노동기준, 환경 기준, 산업 정책,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등 문제 ③정치와 의식형태에 관한 문제임. 이상 세 가지 측면에서 충돌로 초래될 수 있는 결과는 탈동조화 혹은 충돌은 있지만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는 상황 등 두 가지 중의 하나일 것임.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후자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앞으로 RCEP와 CPTPP의 규칙을 놓고 미·중 간의 마찰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유럽, 미국의 많은 기업들에게도 심각한 충격과 피해를 줌. 그 이유는 미국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 제품 중 거의 60% 이상이 외자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기 때문임.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중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중국의 '새옹지마'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것은 바로 '나쁜 일이라도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뜻임. 지난 2001년에 중국은 WTO 가입의정서 제15, 16, 242조항에 모두 동의하며 WTO에 가입했음(미국은 중국이 그런 조항들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음). 그 결과 2003~12년 10년 사이 미국의 GDP와 중국의 GDP는 각각 4조 달러, 6조 달러 이상 증가했음.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도 중국의 GDP는 8조 달러 이상 증가함. 중국은 역사적으로 현재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시기들도 모두 이겨냈으며 중국 사람들은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 외에도 상대와의 싸움을 통해 배울 점을 발견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함. 트럼프의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은 혁신, 법치화, 높은 수준의 산업체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음. 중국은 무역 전쟁이라는 어려운 과정 속에 숨어있는 소중한 기회와 가치를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음. 세계의 어떤 나라도 중국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음.

Q 2. 지난 11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 서명되고 이제 아세안 국가 중 최소 6개국과 비아세안 국가 3개국이 국내 절차를 밟은 후 정식 발효될 것임. 중국도 RCEP에 가입되어 있는데 RCEP의 출범이 향후 미·중 관계와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A 2. RCEP은 매우 포용적인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일본, 한국, 호주 등 선진국들을 포용하는 동시에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후진국들도 포용하고 있음. 또한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며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주장하고 배타주의를 반대함. RCEP은 개방수준이 90%에서 92%, 93%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추동할 것임. 이번 코로나19의 충격에서 경제가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은 중국이

고 뒤이어 한국과 일본, 동아시아 국가, 호주, 뉴질랜드 등 나라들도 회복하기 시작함.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와 생산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은 논평에서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은 팍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시피 동아시아의 생산네트워크는 이전의 글로벌 분업 중 제조업과 노동력 파트를 담당해옴.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는 향후 수요, 공급, 과학기술 혁신, 서비스, 자본, 화폐와 금융협력 등이 모두 점차적으로 아시아로 이전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①수요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내부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수입도 증가할 것임. ②공급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산업·공급 체인은 점차 동아시아 지역에 기초를 둘 것임. ③과학기술 혁신 측면에서, 2020년 글로벌 혁신지수를 분석할 때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프란시스 거리 사무총장은 '글로벌 과학기술의 혁신추세가 아시아로 이전하고 있는 것이 2020년의 가장 큰 변화이다'라고 밝힌 바 있음. ④서비스 측면에서, 중국 정부는 현재 높은 수준의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높은 수준'의 핵심 내용이 바로 R&D서비스, 기술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정보 서비스, 인재 서비스, 전문성 서비스 등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전임. 2020년 1~11월 중국의 실제 외자이용액 중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임. ⑤자본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아시아 지역에 잠재적 기회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 외 RCEP의 출범은 한중일 FTA 협상의 가속화 및 CPTPP와 FTAAP의 점진적인 추진을 촉진시킬 것임. 또한 시진핑 주석이 언급했다시피 중국은 CPTPP의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경제 규칙을 받아들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Q 3. '14·5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에서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고 알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기업·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IT 대기업들이 미국 뿐 아니라 중국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여겨짐.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계열사인 앤트 파이낸셜의 상장을 중단시키고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반독점 강화 방침을 발표하며 P2P 대출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등 인터넷 기술 기업들의 뉴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이를 보면 현재 중국의 핀테크, O2O, 공유경제 등 신 경제부문의 기업들이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함. 일부 학자들은 '우측 감박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현상'이라는 의견도 제기함.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시장의 규범화·제도화와 잠재적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만으로는 기업 특히 외자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려워 보임.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3.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이런 조치들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며 정부의 입장이 이해가 됨. 중국 기업들의 발전 속도는 너무 빨라 대부분 정부의 대책이 따라가기 힘들. 따라서 정부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항상 약간 늦은 감이 있으며 이에 정부는 학습 능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예를 들어 앤트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전통 금융기관에서 할 수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 했고 그 취지는 아주 좋았음. 정부는 전통 금융기관에 대해 실물경제 기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의 신용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런 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어려웠음. 알리바바는 자체의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중소기업들의 전기·물의 사용내역이나 거래 상황, 재고 정보 등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양호한 신용정보 수집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전통 금융기관이 할 수 없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문제 삼았던 것은 앤트 파이낸셜이 대체 금융기관인가, IT기업인가 하는

문제임. 만약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본다면 반드시 정부의 감독과 규제를 받아야 마땅함. 부채율 등 금융 감독관이 소홀해지면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임. 미국은 2007년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한 시장경제체계, 완비된 법적·제도적 환경 및 금융 감독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만약 엔트 파이낸셜 측에서 사업 초반부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핀테크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핀테크 기업의 표준화·규범화 문제, 금융리스크의 방지 시스템 등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됨. 중국 정부가 디지털 경제에 대해 대대적으로 지원·장려하는 의지는 의심할 바 없음. 그러나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경제학자들이 제기한 '무엇 때문에 전 세계의 디지털 기술·경제·무역이 빠르게 발전하는 반면에 전 세계 노동생산성의 성장률은 오히려 낮아지는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왜 노동생산성과 총요소 생산성의 진보를 가져오지 못했는가?'라는 문제임. 디지털 기술의 산업화도 중요하지만 산업의 디지털화가 더욱 중요함. 디지털 기술이 전통 산업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야 하며 앞으로 과학기술의 혁신은 노동생산성의 제고를 견인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미국의 IT 혁명이 나중에 IT 버블로 이어졌던 경험도 참고해야 함. 그러므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정부가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며 향후의 발전에 있어서 '상식을 존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될 것임.

Q 4.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체결된 지 1년이 지났음. 합의에 의하면 중국은 2020~21년 두 해에 걸쳐 공산품, 농산물 등 약 2,000억 달러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이행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반쯤밖에 지켜지지 않았음. 중국이 실제로 합의의 구매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미·중 무역 합의 1주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A 4. 우선 중국은 신용을 아주 잘 지키는 나라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 특히 세계 무역에 대한 타격이 아주 큰데 WTO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세계 무역이 급감했다고 밝힌 바 있음.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은 여전히 불가항력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합의 내용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의 현실적인 문제는 전 세계 경제 둔화로 인해 가격이 인하되었다는 것임. 중국이 지금까지 달성한 수량을 이전의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50%를 훨씬 초과할 것임. 가격 요인 이외에도 물류, 저장, 운송 등 여러 방면의 영향도 있으며 제품을 구매할 때 국내시장의 실제 수요에 따라 구매해야 하는 원칙도 고려해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현재까지 이행 상황에 대해 미국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고 할 수 있음. 그 외 예전에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였는데 운항 중단으로 인해 구매가 어려워진 것도 있으며 미국의 거래 제한 리스트(实体清单) 등 예견치 못했던 인위적인 요인도 있음.

Q 5.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고려한다고 말씀하셨고 지난 주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CPTPP 가입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들었음. 연사님의 발표 내용 중 중국이 CPTPP 가입을 적극 고려할 때 미국과의 충돌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A 5. 향후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 중국은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문제를 비롯한 비시장경제의 지도방향, 경제 왜곡, 산업 보조금, 지식재산권 보호 등 문제에 대한 정책면에서 더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6. 발표 내용 중에 산업·공급·밸류 체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체인의 개념은 같은 것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A 6. 산업·공급·밸류 체인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①우선 전통적인 산업 체인부터 말한다면 업·다운 스트림, 생산-공급-판매, 대내외 무역, 규모의 대·중·소형, 생산의 전·중·후 등의 기준으로 보는 산업 체계임. ②공급 체인의 중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의 글로벌화와 IT 혁명 이후부터라고 생각됨. 글로벌화와 IT혁명은 전 세계에 복합적인 물류 혁명과 글로벌 공급체인 관리라는 아주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제품 내 분업과 국제 공급·수요의 분업이라는 새로운 분업 형태를 탄생시킴. 따라서 한 가지 제품이 세계 각 국가와 지역에서 분업을 통해 생산되는 과정에서 △공급 체인의 안정성·효율성을 높이고 △제품의 원가를 낮추며 △물류 비용을 낮추고 △재고를 줄이는 것을 통해 수익의 극대화를 달성하는 중요성이 강조된 것임. ③밸류 체인은 공급 체인의 글로벌화가 추진됨에 따라 새롭게 제기됨. 전통적인 무역 통계 방식은 주민(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국민과 외국인 모두 포함) 기준에 따른 통계였음. 예를 들어 중국 내의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 외자 기업들의 무역은 모두 중국의 무역량으로 집계되었음. 이런 배경에서 미국 경제학자들이 '무엇 때문에 중국의 수출은 인도, 브라질, 러시아와 같지 않고 오히려 미국, 일본, 유럽과 비슷한가?', '중국의 무역흑자는 대체 누가 창출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밸류 체인의 개념이 도출된 것임. 즉 한 나라의 수출 중에서 다른 여러 나라들에 속한 부가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함. 현재 많은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한 제품 내에서 각 국가에 속한 부가가치를 계산하고 있음(예를 들어 애플 제품 중에서 중국에 속한 부가가치는 5% 미만임). 그러므로 산업·공급·밸류 체인은 각각 미시적으로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그 외 소유권 기준의 통계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음. 소유권 기준으로 무역액을 통계한다면 미국은 세계 최대 무역 흑자국일 것임. 왜냐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 중 다국적 기업의 내부 교역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임. 그렇지만 미국은 이런 기준의 무역통계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중국을 세계 최대 무역흑자국으로 평가해야만 더 유력한 타겟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임.

Q 7. '쌍순환'의 발전 전략이 새로운 구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국가의 경제 발전의 흐름에서 볼 때 '한 국가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점차 변화되고 중국과 같이 큰 국가는 외수만으로 살수 없고 결국은 내수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정리가 됨. 개인적으로 쌍순환 전략은 2014년에 국무원 발전연구중심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중국 2030' 보고서에서 제기한 발전 전략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7.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중국 2030'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와 무역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고 있음.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로 시장·개방·산업 경제를 발전시키기 시작했고 첫 30년 동안에는 가공무역의 방식

으로 글로벌 산업체인의 하단에서 국제 대순환에 참여해왔음.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 이후 1993년에는 가공무역의 규모가 일반무역을 초과하게 되었으며 그 후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일반무역의 규모가 다시 가공무역을 초과하게 됨. 그리고 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하여 중국 경제는 가공무역 중심에서 자립자강의 노선으로 접어들게 되었음. 중국 정부는 10년간의 과도기를 거친 후 2020년에 국내 경제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국제 쌍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의 형성을 추동하는 전략을 제기한 것임.